스포츠동아
BEIJING 2022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3월 말 연인 손예진과 결혼하는 배우 현빈이 올해 개봉하는 '교섭'과 '공조2: 인터내셔날'로 관객을 만난 후 새 영화 '하얼빈' 촬영에 돌입한다. 사진제공 | NEW

악재 이긴 한국쇼트트랙, 오늘 남자 5000m 계주·여자 1500m 동반 출격

황대헌·최민정 '금빛 엔딩' 준비 끝!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16일 피날레 무대가 차려진다.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1500m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황대헌이 앞장선다. 9일 베이징캐피털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남자 1500m 결선을 1위로 골인한 뒤 환호하는 황대헌. 베이징 | AP뉴시스

강산 기자의 여기는 베이징

남자계주, 준결선 1위 1번 레인 유리
황대헌, 남자 선수들 전체 메달 욕심
평창 金 최민정, 1500m 2연패 도전
김아랑·이유빈도 금사냥 준비 구슬땀

BEIJING 2022

수많은 편견과 우려에 판정 피해까지…. 대한민국 쇼트트랙대표팀은 여러 악재를 딛고 일어섰다. 이미 경기일정을 마친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7개 종목 중 금메달 1개를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거머쥔 만큼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남자 1500m에서 황대헌(강원도청)이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1000m에서 최민정(성남시청)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3000m 계주에선 최민정-김아랑(고양시청)-이유빈(연세대)-서휘민(고려대)이 은메달을 합작했다. 취약종목으로 꼽히는 남녀 500m, 편파판정의 희생양이 됐던 남자 1000m,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00m 혼성계주에선 메달을 수확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선수들은 한 뼘 더 성장했다.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시간이다. 16일 베이징캐피털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질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1500m만이 남았다. 남자 5000m 계주에 나설 황대헌-곽윤기(고양시청)-이준서(한국체대)-박장혁-김동욱(이상 스포츠토토), 여자 1500m에 출전할 최민정과 김아랑, 이유빈은 경기가 없었던 14~15일 구슬땀을 흘리며 마지막 출격 채비를 갖췄다.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과 메달을 다툰다. 준결선을 1위의 기록(6분37초879)으로 통과한 덕분에 가장 안쪽인 1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는 어드밴티지도 얻었다. 남자 계주는 2010년 밴쿠버

최민정

대회 이후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모두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간절함도 커졌다.

남자대표팀 에이스이자 이번 대회 2관왕을 노리는 황대헌은 남자 선수들 전체의 메달이 걸린 계주에서 더욱 힘을 내고 싶어 했다. 15일 훈련을 마친 뒤 "우리가 준비한 것을 후회 없이 펼치자는 생각뿐"이라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성적은 따라올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자 1500m는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2018년 평창대회 금메달리스트 최민정은 이 종목 2연패에 도전한다. 앞서 열린 500m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 1000m에서 수자너 스휠팅(네덜란드)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터라 최민정의 행보에도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민정은 14일 공식 훈련 때도 묵묵히 보조링크의 트랙을 뛰었다. 장거리 종목이기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준준결선 조편성도 나쁘지 않다. 장위팅(중국), 페트라 야서퍼티(헝가리) 등과 1조에서 뛴다. 조 3위까지 주어질 준결선 티켓은 무난히 따낼 전망이다. 최민정은 "1500m에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며 "준비한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끝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우승으로 이 종목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는 이유빈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껄끄러운 상대 킴 부탱(캐나다)과 함께 준준결선 5조에 편성됐지만, 준결선 진출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는 "1500m에 기대가 큰 것 같아 부담도 있지만,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뛸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 베이징올림픽 관련기사 2·3면

베이징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결혼하는 현빈, 일복도 터지겠네

3월 손예진과 결혼 후 '교섭' '공조2' 홍보 총력
일본에 선판매된 '교섭' 한류파워 재점화 찬스
결혼 후 첫 촬영 예정작은 첩보액션 '하얼빈'

사랑과 일, 모두 잡았다.

3월 말 동갑내기 톱스타 손예진(40)과 결혼하는 현빈이 배우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일 모드'를 이어나간다. 당분간 결혼 준비에 힘을 쏟을 그는 이후 잇따라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만날 채비를 차린다.

우선 이미 촬영을 마친 두 편의 영화 '교섭'(제작사 수박)과 '공조2:인터내셔날'(제작사 JK필름)의 홍보 관련 활동이 결혼 이후 배우로서 첫 공식 행보가 될 전망이다. 두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확한 개봉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여름방학, 늦어도 추석 명절 시즌에 선보일 전망이다. 2018년 개봉한 '창궐' 이후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난 지 4년 만이다.

임순례 감독의 신작이기도 한 '교섭'은 중동지역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를 그렸다. 현빈은 황정민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현빈은 '교섭'을 통해 한류스타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이 지난해 현빈의 흥행 파워에 힘입어 일본에 선 판매된 덕분이다. 앞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2020년 일본 한류를 재점화한 그가 자신의 이름값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현빈은 2020년 넷플릭스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을 일본에서 공개해 연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려놓았다. '교섭'은 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 14개국에도 배급 판권이 팔렸다.

또 다른 주연작 '공조2:인터내셔날'은 2017년 781만 관객을 모은 흥행작 '공조'의 후속편이다. 남북한 형사와 미국 FBI 요원의 글로벌 공조 수사를 그린 액션영화다. 1편에 이어 유해진·윤아와 함께 다시 나선 현빈은 FBI 요원 다니엘 헤니와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인 진선규 등과 새롭게 손잡고 다시 흥행을 노린다.

이와 함께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연출하는 '하얼빈'으로 결혼 이후 첫 연기 무대에 나선다. 영화는 1900년대 초 중국 하얼빈을 배경으로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독립투사의 이야기로, 현빈은 복합적인 감정과 액션을 오가는 연기를 펼친다.

이처럼 현빈은 올해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겨냥하며 배우로서 행보를 이어간다. 손예진과 사랑을 쌓아가던 지난해 1월 경기도 구리시의 고급 빌라를 매입하는 등 일찌감치 결혼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여느 해보다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